



영산강 황포돛배 '목포호' 취항 남도 젓줄인 영산강의 옛 풍요와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전통 황포돛배 목포호가 7일 목포시 옥암동 카누경기장에서 취항했다. 영산강 황포돛배는 계류장을 출발, 무안과 영암을 잇는 무영대교까지 20km를 오가며 노젓기 체험이 가능하도록 16개의 노를 비치했고 선상에서 남악신도시와 나불도 관광지 등 영산강의 자연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총선 앞두고 뜨거워지는 '광주 區간 경계조정'

동구·서구갑·서구를 유지 초점

강운태 광주시장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정수 유지 등을 위해 구간 경계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의원이 현재 진행되는 경계조정 방식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향후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구간 경계조정이 오는 2012년 4월 총선에서의 선거구 조정 기준과 논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거론되는 구간 경계조정 방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행 8명의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기 위해 북구 일부 동을 동구와 서구로 편입하는 자치구 경계조정(안)이 비주목하게 고려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다. 광구 북구 풍향동과 두암3동을 동구로 편입시키고, 동림동을 서구로 편입시켜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도모 하자는 게 골자다. 현행 국회의원 1인 선거구 인구 하한선 10만4000명을 밑도는 동구(10만2556명·11월 말 현재)에 북구정 개정 당시 동구에서 북구로 옮겨진 풍향동과 두암3동을 편입시킨다는 방안이다. 여기에 광주 북갑과 북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북갑의 오지동 일부를 북을로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북갑 선거구 하한선 31만2000명을 밑도는 서구(30만4018명)에 북구 동림동을 편입시켜 국회의원 2인 선거구를 유지한다는 방안이다. 다만 구간 경계조정이 오는 2012년 4월 총선에서의 선거구 조정 기준과 논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논리 공방=광주 북갑의 강기정 의원은 현행법상 구간 경계조정 없이도 의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강 의원은 인구 하한선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현재 인구 21만7316명인 남구로 통합할 경우 인구 수가 상한선 31만2000명을 넘기 때문에 2개 선거구로 분할해 동구의 국회의원 의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에 자치구 선거를 일부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부산 해운대와 기장군의 예처럼 선거법에 부칙 특례를 두고 있어 광주 동구도 인접 구와의 통합을 통한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간 경계조정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부산 해운대·기장군이나 부산 북구·강서구, 인천 서구·강화군 등은 공직선거법 25조 부칙특례를 통해 인접구 통합을 인정했지만, 이는 광주 동구와 달리 부산 해운대, 북구, 인천 서구가 기존 2인 선거구로 국회의원 수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했다는 것이다.

부칙 특례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다분히 이례적인 사례여서 광주 동구에 적용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강 의원과 반대 측의 정치적 논리는 오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최종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미리 안전하게 미리 구간 경계조정을 해주자는 포석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저가 낙찰→싸구려 시공→부실 공사

광주시 BTL(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문제점

대부분 공사 예정가의 60%에 낙찰 설계·예산 사용 관리·감독도 허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Transfer Lease)의 사업규모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에 이르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반적으로 소홀하다. 특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 공사예정가의 60% 수준에서 낙찰되는 데다 계약시점과 공사시점이 다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낮추면 낫출수록 유리해 공사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사 전반이 투자자 입장에서 공사에 일임돼 있고, 감리업체마저 공사과정에서의 잘못을 묵인하는 관행이 구조화돼 있는데다, 광주시마저 안전하게 대처하면서 부실공사 의혹을 키웠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 하수관거 BTL사업 2곳 1995억원=광주시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북구 일대 150km(2007년)와 서구 및 남구 일대 100km

(2008년)로, 사업비는 각각 1115억 7700만원과 879억원에 이른다. 완공 시기는 모두 2013년으로 20년 장기계약을 맺어 광주시는 완공 후 투자업체 컨소시엄에 운영비와 임대료, 이

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기반시설 설치를 민간투자자에게 맡기고 장기간에 걸쳐 이를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다. 20년 장기계약으로 단기간 부담은 줄어들지만 이들 사업으로 인해 매년 100억원 이상의 현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수익률 낮은 BTL 감독 강화해야=전문가나 시민단체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

낮은 수익률로 인해 사업자가 비용 최소화해 집착하면서 공사의 질 하락 ▲계약 시점과 착공 시점이 달라도 물가상승분 반영 불가 ▲납품업체 피해 가장 ▲관리·감독 소홀 등을 꼽고 있다.

특히 민간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이 낮은 만큼 투자비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자재의 단가를 비현실적으로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며 "들어가는 업체에 회사 운영을 위해 벌 수 없이 선택한 것으로, 들어가 뒤에는 낮은 단가로 인해 고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2007년 하수관거정비사업 역시 제품의 질을 놓고 벌인 납품업체들 간의 '일력'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애초 설계한 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예산 사용은 적절한 지에 대해 엄밀히 살펴야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운영을 투자자가 맡는다는 이유로 허술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남구의 장병완 의원은 "무슨 뜬금 없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상식적으로 구간 경계조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구간 통합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구 갑이 지역구인 조영택 의원을 "전남지역의 일반 시나 군은 역사 및 문화적으로 확연히 구별돼 경계조정이 어렵지만 광주의 구는 주민들의 동질성이 구분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강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해서 구간 경계조정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심경을 나타냈다.

서구 을의 김영진 의원의 "분할 선거구로 통폐합 된 적이 없었지만 이는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며 "북구와 서구의 경계조정을 통해 서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통폐합 가능성을 아예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최권일기자 tuim@kwangju.co.kr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설계와는 다른 자재가 납품되고, 일부 자재가 재생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시 북구 전남대 주변 공사현장.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區간 조정 없이도 국회의원 8명 유지된다”

강기정 의원 경계조정 반대...다른 의원들 발끈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갑) 의원이 7일 강운태 광주시장과 지역 정치권이 추진하는 구(區)간 경계조정과 관련 "구간 경계조정을 하지 않아도 국회의원 정수 8명은 줄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무시한 채 정치적 이익을 위한 구간 경계조정에는 반대한다"고 밝히자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나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10만4000명)을 밑돌면 주변 지역구와 통합하게 되며, 통합인구가 인구상한선(31만2000명)을 넘으면 2개 선거구로 분할하고 있다"며 "지난 11월 말 현재 인구 하한선을 밑도는 동구(10만2000명)는 주변구인 남구(21만7000명)와 통합하면 현재의 의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한 "서구(30만4000명)의 경우는 인구상한선을 밑돌더라도 갑과 을로 분할된 선거구를 다시 통합하는 전례가 없었던 만큼 현재의 2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이 같은 주장에 동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주선 의원은 "동구는 생활권이 동일한 북구와 경계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남구와 통합해서 현재의 의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강기정 의원의 주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독실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발끈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광주의 미래를 위해 이뤄져야 한다"며 "구간 경계조정을 통해서라도 안정적으로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의 선거구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교캠퍼스 전경

마지막 시대! 마지막 부르심!

광주바이블칼리지 신(편)입생 추가 모집

GWANGJU BIBL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학부 및 신대원(M.Div)과정

1. 국내신학교 중 최고의 시설, 최최의 교육환경
- 300명 수용 생활관, 체육관, 체물(예배당), 식당, 도서관, 교수연구실, 개인지도실 각종 연구소, 수영장, 산책로

2. 호남 최고 수준의 교수진 - 선교, 치유, 상담, 구약, 고대근동어 분야에서는 한국최고의 교수진

3. 최 단기간 학위과정 완성 - 대학 학부는 2년 대학원은 1년에 졸업

4. 대 교단 총회인준신학교 - 졸업생 전원 100% 목사인수, 선교사파출(책임진로지도)

5. Venture Spirit
- 전문성과 은사 그리고 Venture Spirit 를 가진 전문가(교수, 목사, 선교사)로 하여금 국내 또는 해외 선교지역에 교회를 개척케 한 후 그곳에 GBC졸업생들을 심어준다.

6. 특수지역, 특수교회를 위한 맞춤형 신학교육
- 국내 도시 목회, 성목회 산골목회, 농어촌목회, 해외 선교별 중공선교, 몽골선교, 중앙아시아 선교, 일본선교, 베트남선교, 캄보디아선교, 태국선교, 인도선교, 파키스탄선교, 중동선교,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지역 복음 사역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수교육과 훈련 실시.

7.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학비
- 전교생 100%에게 장학 혜택을 주어지고 학생 본인 부담은 최소화

8. 해외교회 인턴십 제도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 해외 교회와 자매교회를 맺고 해외 자매교회에 단기 인턴십을 보낸다. (단기해외 현장 학습 및 실습)

9. 해외 대학들과 자매관계를 맺고 매년 심포지엄 포럼, 선교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10. 복수 학위제 실시
- 모든 학위 과정의 절반은 국내 GBC에서, 나머지 절반은 해외 자매 학교에서 이수하고 학위는 양국에서 각각 준다. (한 과정 두개의 학위)

뜨거운 영성과 나카로온 지성의 조화
광주바이블칼리지
 Gwangju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평생교육의 1번지
세린사회교육원
 후 원 : Chemolee Lab, Corp.(U.S.A)

http://www.gjbc.kr
 전남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 산 72번지

TEL, 061) 381-1365/000
 FAX, 061) 381-1367

NO	교수명	과목	경력 및 현직
1	이환수 (이사장)	철학	미국 일리노이대학졸업, 5,18북미주대표, TX한인회장&상공회의소 회장, 한미인문연구소장, 광주바이블칼리지 이사장, 세린사회교육원 대표
2	최정만	신학/선교학	서울대졸업, 미국Fuller(석.박사), 이화여대, 총신대, 숭실대, 고신대강사, 광신대교수직임, 한국복음주의선교회회장, 한국신학자 최우수학술대상수상
3	채영애	실천신학	미국미시건대학(학사), 영국브리스톨대학(석사), 미국호튼윌킨스대학(석사), 미국플로리다대학(Ph.D), 미국콜리안센터(연구원), 미국플러신학대학원(연구원), 총신대학교 신교대학원(교수), JD대학
4	윤영혁	조직/신학	총신대학교(M.Div.), 미South Western 대학교(Th.M), Regent대학교 조직신학(Th.D) 전남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M.Div.), 전남대학교강사, 이스라엘브리리대학 고대근동어(Ph.D), 광신대학교구약학교수직임,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M.Div), 화남연합신학대학(박사과정), 독일브레멘한인교회 담임, 벨기에브뤼셀한인교회, (현)광주순교교회 담임
5	김영호	구약학	총신대학교(M.Div.), 미South Western 대학교(Th.M), Regent대학교 조직신학(Th.D) 전남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M.Div.), 전남대학교강사, 이스라엘브리리대학 고대근동어(Ph.D), 광신대학교구약학교수직임,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M.Div), 화남연합신학대학(박사과정), 독일브레멘한인교회 담임, 벨기에브뤼셀한인교회, (현)광주순교교회 담임
6	전원호	신약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현)담양읍교회 담임
7	조태익 (교목실장)	구약학	총신대학교(영문학 학사, 석사) 박사) 선교총회(M.Div), 조선대, 동신대, 호신대 출강, 광주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세린사회교육원부설 국제어학원장
8	임영	선교/영어	한국성서대학교,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미국TTS 목회학(박사과정), 한국사회교육원 교수,(현)세계복음사역원원장, 한국사회교육원 중앙COT'강력지원본부 원장, (현)남양주 푸른초등학교 담임목사
9	김응별	실천신학	총신대신대원(M.Div.)총신대학교(조직신학 Ph.D)위촉, (현)주님의교회 담임
10	고경태	조직신학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M.Div.), Th.M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Th.M), 예루살렘성서대학(Th.D), 백석대학교(Th.D), (현)주님의교회 담임
11	신동구	실천신학	호남신학대학, 장로회신대원(M.Div.), 호남신대(Th.M), 장신대학원(Th.D)(현)담양읍교회 담임
12	김봉진	윤리학	전남대학공과대학, 경영대학원(인사관리)
13	손순용	사회복지학	동신대학교사회복지학박사, 전남도립대학교교수
14	정현필 (연구처장)	창조과학	한국항공대학교항공공학박사, 조선이공대학교교수, 창조과학회이사, 전남대학교출판, 개신대학원대학교(M.Div.), 미국 국제신학대학원(Ph.D.), (현)월송교회 담임
15	강대영	실천신학	개신대학원(M.Div.), (현)영광염산교회 담임
16	최사채	실천신학	전남대학교음악학과, 미국위싱턴대학교출, (현)호신대학교강사
17	김원식	교회음악	장로회신학대학원졸업, 예수전도단(YWAM)DTS호턴강사, 새물결선교회부회장, 강사, (현)광주예향교회 담임
18	이길수	부흥신학	개신학(M.Div.), 미 I.T.S 목회학 박사학위 과정, 서울성경신학교교수
19	진장환	기독교 교육	

세린사회교육원

- 웃음 치료(월 5만원)
- 템스 영어(월 10만원)
- 영어 성경(월 10만원)
- 워십 찬양리더자 교육(월 7만원)

모집 안내 10명까지 인원 제한. 지원 분야(선교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입학 문의 학장 직접상담 ☎ 010-7413-1215, 061) 381-0000, 1365